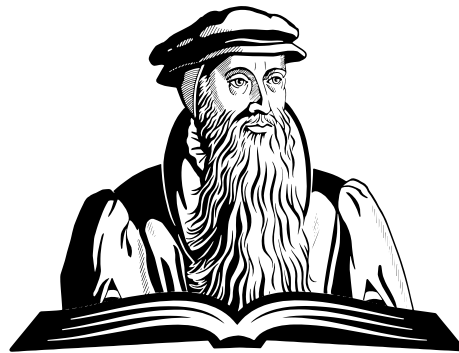

비디오 강의 학습 단계: 성경 신학

강의 16: 솔로몬

강의 발표자: 로버트 맥컬리 목사님, M.Div



The John Knox Institute
of Higher Education

존 녹스 고등 교육 연구소 우리의 개혁된 유산을 전세계 교회에 위임하며

존 녹스 고등 교육 연구소

우리의 개혁된 유산을 전세계 교회에 위임하며

© 2019 존 녹스 고등 교육 연구소

판권. 이 출판물의 어떤 부분도 출판사의 서면 허가 없이 검토, 의견 또는 장학금을 목적으로 간단한 인용을 제외하고는 어떤 형태로든 또는 이익을 위해 어떤 수단으로도 복제될 수 없습니다.

출판사, 존 녹스 연구소, P.O. Box 19398, Kalamazoo, MI 49019-19398, 미국

달리 표시하지 않는 한 모든 성경 인용은 공인 킹 제임스 버전으로 합니다.

웹사이트방문: <https://ko.johnknoxinstitute.org>

로버트 맥컬리 목사님은 스코틀랜드 자유 교회의 (continuing) 회중인 사우스 캐롤라이나 그린빌에 있는 그린빌 장로교회에서 복음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www.freechurchcontinuing.org

학습단계

성경 신학

30 강의

로버트 맥컬리 목사님 M.DIV.

21 장 구약 · 9 장 신약

구약 강의들

1. 소개
2. 창조
3. 타락
4. 노아
5. 아브라함
6. 족장 I
7. 족장 II
8. 출애굽
9. 시내산
10. 성막
11. 희생제물
12. 제사장
13. 유업
14. 다윗
15. 시편
- 16. 솔로몬**
17. 성전
18. 왕국
19. 예언자
20. 포로기
21. 회복

구약 강의들

22. 성육신
23. 속죄
24. 부활
25. 오순절
26. 교회
27. 연합
28. 삶의 적용
29. 사명
30. 영광

강의 16

솔로몬

강의 주제:

모든 지혜의 보화와 지식이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본문: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마태복음 12:42).

강의 스크립트 16

어떤 시대건 세상은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지혜로운 사람을 칭송하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지혜는 귀한 미덕으로 여겨집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친구들이나 동료들에게 바보 취급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죄가 참된 지혜를 뒤틀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진정한 지혜인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은 어리석게 여긴다고 말합니다. 또 그는 이 세상의 가짜 지혜는 반드시 어리석음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어리석다는 단어를 사용할 때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어리석음이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성품과 본성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지혜는 무엇일까요? 지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어떤 역할을 주셨을까요? 현명한 사람이 어떻게 어리석은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솔로몬은 언제 지혜로운 자에서 어리석은 자로 변신하게 되었으며 그의 변신이 이스라엘에 끼친 결과는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입니까? 어떻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의 참된 보고가 되십니까?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어디로 돌아서야 합니까?

성경은 솔로몬이 당대의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이 사실은 당시에 매우 중요했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인식됩니다.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지혜의 대명사였습니다. 지혜는 솔로몬에게 국제적인 명성을 안겨줬고 세계의 명물이 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완벽한 지혜를 가졌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최정상의 지혜에서 추락해서 어리석음의 심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통치기간 동안 계시하셨던 신학을 탐구할 것입니다. 먼저 역사적인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의 영광은 다윗의 통치를 통해서 확실하게 되었고 그의 아들 솔로몬의 통치기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사무엘하12:24, 25에는 솔로몬이 여호와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여디디야라는 이름을 얻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평화를 의미합니다. 역대상22:9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다윗은 전쟁의 사람이었지만, 솔로몬은 평

생 동안 평화의 열매를 누렸습니다. 하나님도 역시 전례 없는 번영을 이스라엘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평화와 번영은 솔로몬의 통치 하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열왕기상 2:2이하의 내용을 보면,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본문에서 어떻게 다윗이 은혜언약의 두 측면인 모세언약과 다윗언약을 하나로 합쳤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과정을 통해서, 불가해한 하나님의 사역이 단순히 역사적인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경건과 불경건, 축복과 저주의 예시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미래의 계획, 곧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장엄한 계획이 펼쳐지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솔로몬의 출발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은 암울하게 끝났습니다. 그는 지혜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결국 어리석음으로 끝났습니다. 솔로몬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도 지혜로 알려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호수아 (신명기34:9)와 다윗 (사무엘하4:20)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그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솔로몬과 관련해서 성경의 지혜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강조했습니다. 열왕기상3장에는 솔로몬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를 달라고 대답했던 것을 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은 지혜를 주셔서 국제적인 명성을 누리게 했습니다. 열왕기상4:30-34에 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조금 후에는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시바의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에 매혹된 사람의 예시입니다. 여왕이 발견한 지혜는 그녀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탁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통치가 여러 나라에 영향을 끼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 국가들은 다시 솔로몬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시작은 희망찼지만, 솔로몬은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언약이 요구하는 것에서 등을 돌렸습니다. 솔로몬은 이방여인들과 결혼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을 어긴 것입니다. 이 부인들은 솔로몬에게 악영향을 끼쳤고 그 결과 하나님은 신명기7:3,4에 경고한대로 그가 우상숭배를 하도록 두셨습니다. 열왕기상11:1-6에 이 모든 내용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비록 내용이 좀 길기는 하지만 한번 읽고 들어볼 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칠백 명이요 첩이 삼백 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솔로몬의 우상숭배에 대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 왕국을 찢어 대부분을 다른 이에게 주실 것이라는 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과 맺은 언약에 언약적 신실하셨던 하나님은 솔로몬이 죽은 후로 심판을 연기하셨습니다. 다윗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나님은 한 지파를 보존하여 솔로몬의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죄는 멸망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이 씨앗은 이스라엘의 남은 역사에 걸쳐서 악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것은 왕국의 분열과 두 나라의 우상숭배에 대한 길을 닦았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18강의에서 왕국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솔로몬의 통치에 관한 성경의 내용에 등장하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몇 가지 신학적인 주제들로 시선을 옮겨 봅시다.

둘째로, 신학적인 주제들입니다. 먼저 가장 분명한 것은, 지혜에 대한 주제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자신이 모든 지혜의 출처라는 사실을 배웁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님은 지혜가 있으며 지혜를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라는 말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속성이란 하나님의 존재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게 지혜로우신 하나님” (롬16:27) 그리고 “유일하게 지혜로우신 우리 구주 하나님” (유25절)으로 묘사됩니다. 이사야 40:14에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물론 이에 대한 대답은 “아무도 없다”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지혜로우시므로 그분의 말씀도 역시 지혜를 전합니다. 신명기4:6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이 이스라엘의 지혜였다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라 하리라” 반면에 인간의 부패한 마음은 헛된 사상을 하며, 인간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라고 로마서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55장은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이 인간의 길과 생각보다 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보다 더 높다고 합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 중심이며, 그분의 말씀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뜻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가운데 성경을 인생의 실제적인 영역에 적용하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지혜도 역시 언약교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잠언1-9장에는, 지혜가 결혼이라는 언약적 언어로 의인화되어 있습니다. 그녀 곧 지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소리치고 그들을 부릅니다. 그들은 귀를 기울이고 거절하지 않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귀를 기울이면,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잠언2:10,16) “버림받다” 혹은 “버리다” 그리고 “잊어버리다”는 단어를 주목하세요. 선지자들은 이런 단어들을 아주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런 언약의 파괴는 매춘과 간음을 낳습니다. 이 주제는 선지자에 대해서 생각할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인의 지혜와 대조적으로 어리석음을 묘사하는 낯선 여인의 길에 주목하세요. 잠언7:27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떻게 그 길이 지옥과 죽음의 방으로 인도합니까? 지혜는 하나님의 율법을 잊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잠3:1). 잠언 3:18에서는 지혜가 생명의 나무로 나옵니다. 이 표현은 우리를 다시 과거의 에덴과 연결시켜주며 미래로는 천국에 연결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훈계로 훈련을 받은 사람과 관련하여 히브리서12:5 이하는 잠언3:11,12을 가리킨다는 사실에 주의하세요. 어리석음을 버리고 지혜로 피하라는 부름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라는 부름입니다. 솔로몬도 처음에는 지혜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솔로몬 자신보다 심지어는 이스라엘보다 그 이상을 의미했습니다. 열왕기상10:23-25에,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크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라고 합니다. 이미 앞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솔로몬의 지혜를 세상을 향한 빛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율법의 지혜를 보러 오게 될 세상입니다. 시편과 선지서들은 하나님은 이 지혜의 선물로 국가들을 오게 하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강화합니다. 이 나라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려준 후 하나님은 또한 엄청난 자원을 자신의 백성과 왕국을 위한 유업으로 모으셨습니다. 그 외의 다른 나라들은 성전을 건축하는데 사용되었던 엄청난 거금을 보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부유했기에 은은 길거리의 돌처럼 흔했고 컵은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다른 주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지혜는 잠언에 여러 번 등장하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서 시작합니다. 게할더스 보스라는 신학자는 “여호와에 대한 경외심은 종교에 대한 통칭으로 구약성경 전체에 나타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처음부터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나타나는 지배적인 주제입니다. 존 머리 교수가 기록했듯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경건의 핵심입니다” 신약교회에 대한 묘사를 보세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9:31에서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성령의 위로 안에서 걸어가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뉘우치지 않고 대적하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공포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자녀가 가지는 존경과 영예와 신뢰와 경외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몇 가지 사실을 포함합니다. 첫째로,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을 보는 것을 포함한다. 이런 것이 없으면 경외함도 없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며 우리의 모든 활동과 행동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하여 의식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 안에서 요구하시는 것에 대한 지식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다는 것은 거짓된 신앙의 표지입니다. 로마서3:18은 불신자들을 묘사하면서,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경건한 두려움은 많은 선한 열매를 촉진합니다. 이것은 거룩한 행동을 도모합니다. 이에 대한 예는 고린도후서7:10입니다. 이것은 또한 전도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기도 합니다 (고

후5:11).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경건한 예배에 동기를 부여하며 우리는 시편의 다양한 곳에서 이에 대하여 노래합니다. 신약성경도 마찬가지인데 히브리서12:28,29에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우리의 부르심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열정적으로 추구하도록 합니다. 골로새서3:22,23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 보면 종이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자신의 일을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기뻐합니다. 구약성경의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3:16에는, “그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주제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 시기에 주어진 또 다른 하나님에 대한 계시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의라는 말이 잠언10-15장 사이의 여섯 장에서 무려 54회나 등장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포함된 참된 지혜는 복음적인 의를 생산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요점과 관련하여 솔로몬의 지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하겠습니다.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서가 있습니다. 잠언은 경건한 삶을 사는데 필요한 실천적인 가르침을 주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로 신자를 교육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동의 가장 작은 것까지도 그분의 뜻에 순종하라고 요구하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전체 잠언의 기초입니다. 잠언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로 시작하여 하나님에 대한 경외로 마칩니다(1장7절과 31장30절). 그리고 지혜는 분명히 지배적인 주제가 맞습니다. 하지만 잠언의 근원은 하나님의 도덕법입니다. 잠언은 도덕법을 풀어서 매일의 삶에 있는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합니다.

전도서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어리석음과 허망함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전도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그분의 율법에 뿌리를 두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라고 설득합니다. 전도서의 결론은 이 점을 증명합니다. 전도서12:13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고 말합니다.

셋째, 솔로몬의 노래 혹은 아가서도 있습니다. 아가서는 값을 매길 수 없는 귀한 책인데 모든 개혁파 작가들에게서 신부인 교회와 신랑인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한 아름다운 묘사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사실이 낯설다면 이 중요한 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 사이의 언약적 관계를 묘사하는데 사용되는 결혼이라는 모티프는 구약성경 전체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선지서에 보면 이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옵니다. 신약성경에도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에베소서5장이나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묘사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이 책은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강렬한 정열과 질투심을 품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며, 그분을 찾고 그분을 붙잡고 싶은 마음을 불러 일으킵니다. 오직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에 대해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고 말합니다. 아가서는 단순히 인간적인 사랑과 결혼에 대한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남편을 향한 한결같은 사랑이라는 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셋째, 마지막 주요한 요점에 있어서, 우리는 솔로몬의 통치에서 발견한 신약적 성취에 대해서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 범주에서 우리는 신약적 성취를 발견합니다.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혜는 솔로몬의 영광이었지만 어리석게 되어 버린 솔로몬에게서는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는 탁월하게 나타났습니다. 그 분은 솔로몬보다 위대한 분입니다. 이번 코스의 첫번째 강의에서 우리는 시바의 여왕과 솔로몬왕이 서로 주고받았던 것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마태복음12:42에는,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 땅 끝에서 왔음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우리는 이미 이것이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숨을 멎게 할 만큼 황홀한 그리스도의 탁월한 영광을 어떤 식으로 가리키는지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지혜는 이사야11:1,3에 이미 예언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 본문을 읽어야 합니다. 이 내용은 누가복음2:40에서 그리스도 오실 때 성취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고린도전서1:24)로 묘사됩니다. 그 분은 하나님의 지혜이며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의 저장고를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골로새서2:3은 “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의 성취를 발견하는 두 번째 영역은 그리스도인과 관계 있습니다. 세상의 거짓 지혜는 사실 어리석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1:20에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있습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경쟁하는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주장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3:15 이하는 세상적이고 육감적이며 마귀적이라고 표현되는 세상적인 지혜와 하늘에서 온 지혜, 곧 먼저는 순결하고 평화로운 지혜를 대조합니다. 신자들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지혜를 발견합니다. 우리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연구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3:15말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복음을 성경에서 배웁니다. 고린도전서1:17이하에서 세상은 복음을 설교하는 것 곧 십자가에 대한 설교가 어리석다고 여기지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참된 지혜라고 말합니다. 현대의 신자들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복음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바라봅니다. 이 구원의 열매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율법의 빛 아래서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12:2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결론적으로, 솔로몬의 통치는 우리에게 모든 지혜의 보화와 지식이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그가 했던 가장 중요한 사역 곧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지은 성전에서 가장 위대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우리는 성전신학에 대해서 탐구해 보겠습니다.